

제목: 죄와 벌

본문: 에스더 7장 1-10절

대지: 1.하만의 음모 2.하만의 패망

한줄: 교만의 끝은 성공이 아니라 패망입니다.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하수어로 왕을 제외하면 그 누구보다 더 높은 위치와 권력, 막대한 부와 재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자 앞에 더 이상 세상에 두려워 보이는데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섬기는 왕을 속이면서까지 스스로의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하만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저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과 하만이 함께 했던 잔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순간 이날이 하만의 제삿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의 최후의 결과가 무엇인지, 교만함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을 몰살시켜 죽이고자 했던 하만의 계락을 알고 있던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왕의 왕에 나아왔습니다.

아하수어로 왕은 술을 한 두잔 마시자 에스더에게 요청할 것이 무엇지를 물었습니다.

에스더의 간곡한 요청은 ‘자기와 자기 백성을 살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왕에게 자기와 유다 백성들이 진멸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지혜를 발휘해 자기와 백성들을 모두 몰살 시킨다면 왕에게도 큰 손해가 될 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을 죽여서 얻을 이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스릴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왕의 권세와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점을 노려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아하수어로 왕은 곧장 이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아하수어로로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한 것도 창피한 일이었지만, 온 세상을 호령하는 절대적인 통치자라고 자부하는 자신이 아내조차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수치심이 들었기에 그가 더욱 맹렬하게 분노했습니다.

왕의 분노를 깨달은 에스더는 그 사람이 바로 하만 이라는 사실을 서슴없이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세워둔 장대에 매달아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잠언16:18)는 말씀이 딱 들어맞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교만의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누구나 자신이 하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의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정직으로 살아야 하며 늘 자신을 말씀 앞에 성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문: 요한복음 1장 1-14절

대지: 1.하나님의 본체 2. 육신이 되신

한줄: 바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의 기록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입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의 1장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말씀”(로고스) 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서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지기에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계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말씀의 오심은 빛의 오심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로 알 수 없고 자신의 죄악된 정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오심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므로 빛을 영접하는 자는 빛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생명은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구원의 주된 선물**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빛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목: 생명의 떡

본문: 요한복음 6장 9-14절

대지: 1.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2. 표적

한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묘사하면서 이적이 아닌 표적이라는 헬라어를 총 17회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 사건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한 ‘세메이온’ 단어의 사용 의도를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려는 저자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세메이온(표적)의 사전적 의미로는 ‘표적’ 또는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표시’ ‘암시표’이고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 예언’을 통해서 암시하는 어떤 사건입니다.

이런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세메이온’(표적)으로 묘사된 기적 사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암시하고 지시하는 어떤 것에 더 큰 비중과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기적 사건 자체를 묘사하는데 목적이 있기 보다는 기적 사건 뒤이어 따라오는 예수의 담화를 소개하기 위한 일종의 도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이 행해진 뒤에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담화 설교가 뒤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신 사건의 원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단순히 백성들에게 떡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을 주는 떡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임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으로 행하신 까닭은 그들이 그저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신 진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무리의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육체적인 필요 충족 차원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떡으로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임을 직설적으로 선포하며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들은 단순히 기적과 이벤트가 아니라 그 너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내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담대해야 할 이유

본문: 요한복음 16장 25-33절

대지: 1.마지막 설교 2.환난

한줄: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대해 밝히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다랐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유는 종종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명확히 드러내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명확히 알려주시는 아버지는 ‘사랑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믿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 이야기 합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 그들에게 곧 엄습할 위기의 때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질 때 제자들 모두는 흩어져 도망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신다 해도 아버지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그의 곁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고난, 즉 그의 배반 당하심, 유대와 로마의 재판 및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가 세상의 죄를 지실 때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린 일로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또한 미리 아시고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또한 박해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의 이유는 오직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